

국내 청소년 성범죄자의 재범요인으로서의 성일탈적 경향성*

이 수 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이 연구의 목적은 2014년도 법무부에서 개발하였던 성일탈 검사지의 문항들을 표준화 한 한국판 성일탈 검사(Korean Inventory of Sexual Deviations)가 청소년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범 예측에 있어 타당성을 지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수감 중인 남자 청소년 104명과 성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수감 중인 135명의 남자 청소년, 그리고 비행예방센터에 내원한 57명의 남자 청소년들에게 있어 성범죄 및 비행 관련 전력을 조사하고 성일탈 검사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죄명별 집단 간 차이에서는 성적 가학증 척도에 있어 비성범죄 시설 수용 청소년들이 성범죄 소년과 비범죄 청소년 집단보다 더 높은 평균 점수를 획득하였다. 현재의 죄명은 과거 범죄력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그 다음으로는 소년들의 성범죄 전력을 토대로 하여 비범죄자군, 성범죄 초범군, 성범죄 재범군이 성적 일탈척도 상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성범죄 재범군은 성인지왜곡과 관음증을 제외한 모든 성일탈 척도에서 나머지 두 준거집단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재범의 원인요인으로 추정되는 성일탈의 종류를 확인해본 결과,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에서 소아성애와 성적 가학증은 성범죄 재범을 설명하는 데 유의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한국판 성일탈검사, 청소년 성범죄자, 성적 일탈, 성도착, 재범요인, 누범자화

* 본 연구는 경기대학교 2014년도 교내연구과제 2014-002의 연구지원금으로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산 94-6

청소년 성범죄자들은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다(Bourke & Donohue, 1996; Knight & Prentky, 1993). 미국의 청소년 성범죄 통계와 관련하여 가장 공신력 있는 보고는 NAPA(National Adolescent Perpetrator Network)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단체에 따르면 약 90%의 청소년 성범죄자들이 자신이 아는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피해자들 중 약 39%는 가족이나 친지, 10%는 또래 친구들에 의해 성범죄의 피해를 당하며 단 6%만이 낯선 이에 의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 Graves와 동료들(Graves, Openshaw, Ascione, & Ericksen, 1996)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특징에 대하여 사회·경제적으로는 중·하류층에 속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Burton(2000)은 자신이 수거한 243명의 조사대상자 중 약 36%가 만 12세 이전에 비행을 저질러 성범죄 청소년들이 일반 범죄소년들보다 조발비행의 경로를 더 많이 밟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의 재범률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일수록(Miner, 2002)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고 성에 대한 인지왜곡이 심하며, 사회적 기술이 취약할수록(Kahn & Chambers, 1991)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은 남성 피해자가 있는 경우와 피해자 수가 복수인 경우(Langstrom & Grann, 2000) 더욱 높아졌다. Hagan 등(Hagan, Gust-Brey, Cho, & Dow, 2001)은 나아가 청소년 성범죄자들 중에서도 아동 피해자(20%)가 있는 경우가 일반 강간범들(10%)보다 재범률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청소년 범피자가 보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이성 이외에 청소년 성범죄자들은 역동적 요인(dynamic factors), 즉 아동 피해대 경험, 사회 및 대인관계 기술에서의 문제, 성적 지식과 경험, 학습기능과 인지기능, 학업수행, 지적장애 및 인지장애, 정신건강문제, 약물남용 등에 있어서도 특이성은 존재한다고 알려진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행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인지왜곡에 대한

연구들(Barriga & Gibbs, 1996; Liao, Barriga, & Gibbs, 1998; Mitchell & Dodder, 1983; Short & Simeonsson, 1986)은 성인범들에 대한 연구들에 비하여서는 결과가 일관성 있게 발견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Lakey(1992)는 청소년 성범죄자들에게 있어 성인지 왜곡은 성범죄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성인지 왜곡 이외에도 Katz(1990)는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사회적 기술력의 부족으로부터 유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결과적으로 성범죄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였다. 애착능력의 결핍, 부정적인 가족력, 아동기 때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경험이 모두 성범죄의 중요한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Kobayashi, Sales, Becker, & Figueredo, 1995; Marshall, 1993). 사회적 관계의 손상, 인지적 기능의 결핍, 정신병리 등은 청소년 비성범죄 집단에 비하여 청소년 성범죄자 집단과 상대적으로 더 큰 관련성을 또한 지녔다(Aljazeera, 1993). 이들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성범죄자와 통제집단을 잘 변별하였다. 성범죄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은둔형 외톨이들이란 연구결과(Gal & Hoge, 1999)도 존재하는데, 이는 사회적 고립이 청소년 성범죄자들에게 있어서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다른 연구들(Spaccarelli, Bowden, Coatsworth, & Kim, 1997; Caputo, Frick, & Brodsky, 1999)에서는 청소년 성범죄자들이 일반 비행집단에 비하여 보다 많은 신체적인 학대, 즉 도구를 이용한 가정폭력의 피해경험들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한다. Wieckowski, Hartsoe, Mayer와 Shontz(1998)는 청소년 성범죄자들이 일반 비행집단보다 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정 출신이란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들은 어릴 때부터 학대를 당하였음과 함께 음란물에 노출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Marshall(1993)은 강간이 성적으로 자극적이라 묘사하는 음란물을 친사회적 관계를 지니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보았을 때 성적인 공격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제안하였

다. 또한 아주 어릴 때부터 음란물에 노출되는 현상은 차후 성적 공격성과 가학적인 성일탈과 관련이 됨을 확인하기도 하였다(Caputo et al., 1999; Wieckowski et al., 1998). 성범죄자와 비범죄자가 갖는 성적 환상의 유형이나 빈도가 유사한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나 성적 피학대 경험이나 인지왜곡 혹은 약물남용 등이 성범죄와 관련된 비제지 효과(Marshall, 1993)와 성중독이나 성적폭력에 허용적 태도를 갖게 할 것(Hanson, 2000)이란 점은 충분히 설득력 있다. 이런 메카니즘은 결국 성범죄자들의 일탈적 성적 환상에 적극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성적 학대와 성범죄의 관련성에 관해 Worling(1995)은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87명의 청소년 성범죄자들 중 52%가 성적으로 학대를 받았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남성이었던 청소년 성범죄자들은 75%가 성적 학대를 받았었고 피해자가 여성인 청소년 성범죄자들은 25%만이 성적 학대를 받았었다고 한다.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이나 역동적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들에 비하여 본 연구의 주제이기도 한 성도착이나 성적 일탈이 청소년 성범죄자의 재범을 유발하는 것인지에 대한 장기종단 연구는 드물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있어 성적인 환상(sexual fantasies)이 서로 다른 양상의 성경험과 관련된다는 연구는 존재한다(Daleiden, Kaufman, Hilliker, & O'Neil, 1998). 그러나 청소년 성범죄자라고 하여 일반 통계군보다 성적 환상이 더 심하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대신 다른 연구물들(Hunter & Becker, 1994; Hunter, Goodwin, & Becker, 1994; Murphy, Haynes and Page, 1992)에서는 청소년 성범죄자가 일반 청소년보다 강요된 성경험을 더 많이 하며 좀 더 많은 성도착적 관심, 성적인 피학대 경험을 가진다고 보고한다. 이와 함께 Hunter 등의 연구자들은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던 청소년일수록 보다 더 강한 성일탈적 각성 패턴과 반응성을 보임을 발견하였다. 청소년 성범죄자들에게 있어 가학적인 성적 환상 등 성일탈적 경향성이

재범요인으로서 충분한지에 관한 의문은 그러나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 하지만 강간 등의 접촉 성범죄를 이미 저지른 고위험 성인 성범죄자군에 있어서는 가학적인 성적 환상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실증적 연구의 결과(Abel, Mittleman, & Becker, 1985)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성범죄자라고 해서 모두가 성범죄 재범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성적인 도착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그 정도의 수위에 따라 위험추구행동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또한 일부 성인 성범죄자들의 도착적 경향은 이미 청소년기부터 발달했을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또 다른 연구자들(Abel, Rouleau, & Cunningham - Rather, 1986) 역시 청소년기부터 위험한 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자들이 차후 성인 성범죄자가 된다고도 보고하였다. 이 같은 연구의 결과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청소년 성범죄를, 사춘기 한 때 해보는 실험적인(experimental) 위험 감수(risk taking) 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학적인 행동 등 위험수위가 높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따로 이 가려내는 등의 개인의 고유성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해야만 효과적인 조기개입을 할 수 있을 것임 짐작하게 만든다.

연구의 목적

성범죄에 관한 이와 같은 문헌들은 성인범과 소년범들이 상당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일탈적인 성적 취향, 즉 성도착적 경향성은 조발 비행하는 소년범들에게 효과적인 개입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할 것임을 예상하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성범죄는 전체 성범죄 사건 중 대략 10% 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최근에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 점점 저

연령화 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그중에서도 성도착 등 성적 일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발견하는 즉시 조기에 개입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성인 성범죄자와는 달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일탈의 양상에 대하여서는 심층적으로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소년사법제도 내에서도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개별화된 문제가능성에 충분히 개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문제행동 중 특히 성 일탈 경향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해낼 수 있는 종합심리검사를 개발하려는 2014년도 법무부 연구과제인 ‘성범죄 소년원생 비행 위험성 평가 척도 개발’연구의 타당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14년도에 개발된 청소년판 성일탈 검사지는 기본적으로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의 성도착(paraphilia)의 증세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성도착의 증세들인 타인의 나체나 성행위 하는 모습을 훑쳐보며 성적 흥분을 느끼는 관음장애(Voyeuristic Disorder), 자신의 성기를 타인에게 노출시킴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끼는 노출장애(Exhibitionistic Disorder), 동의하지 않은 타인에게 몸을 접촉하여 마찰시킴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끼는 마찰음란장애(Frotteuristic Disorder), 상대방으로부터 고통이나 굴욕감을 받음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적 피학장애(Sexual Masochism Disorder), 타인에게 고통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적 가학장애(Sexual Sadism Disorder), 사춘기 이전의 아동을 상대로 성행위를 함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끼는 소아성애 장애(Pedophilic Disorder), 무생물인 물건에 대해 성적 흥분을 느끼는 물품음란 장애(Fetishistic Disorder), 이성의 옷을 입음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끼는 복장도착장애(Transvestic Disorder)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성도착 관련 사고 및 태도와 행동경험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들을 검사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검

사문항은 5명의 성범죄자 상담 경험이 일 년 이상 있었던 대학원생들에 의해 우선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때 참조하였던 자기보고식 검사지는 Freund(1990)의 성도착 척도(Freund's Paraphilia Scale)가 있었다. 이 척도의 문항들은 DSM-IV를 근거로 하여 총 9개의 성도착 장애, 즉 성적 가학 장애, 성적 피학 장애, 물품음란 장애, 복장도착 장애, 여성화 도착 장애, 소아성애 장애, 청소년성애 장애, 관음 장애, 노출 장애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Freund(1990)의 성도착 척도에는 DSM-5에 포함되어 있는 마찰음란 장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대신 DSM-5에서는 복장도착의 하위 영역으로 포함된 여성화 도착 장애를 독립된 척도로서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청소년판 성일탈 검사지는 DSM-5의 기준에 따라 마찰음란 장애를 하나의 척도로서 새로이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예비 문항에 포함되었던 척도는 성적 피학 장애, 성적 가학 장애, 물품음란 장애, 복장도착 장애, 마찰음란 장애, 소아성애 장애, 관음 장애, 노출 장애 등이었다. 이들 문항들은 강제선택형 이분형 문항 대신 모두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다(부록 참조).

성적 일탈을 평가하기 위한 성도착의 하위척도들 이외에 성적 문제행동을 추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성 관련 인지왜곡의 정도와 음란물중독에 대한 평가척도를 포함하였다. 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왜곡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는 크게 강간통념 척도(Rape Myth Scale; Burt 1980)와 청소년 인지왜곡 척도(Cognitive Distortion Scale for Adolescence; Abel & Becker(1987)를 근간으로 문항들을 참조하였으며 앞서 언급하였던 5명의 대학원생들이 각 문항들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15문항을 선택하였고 한국적 문화에 적합한 다섯 문항들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음란물중독 척도는 Young(2001)의 사이버섹스 중독 척도(The Cybersexual Addiction Index: CAI)를 참조하여 국내 청소년들에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수정하여 여러 번의 요인분석 결과 열 문항으로

하위척도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일탈 하위척도 상 준거집단, 즉 죄명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범죄를 죄명으로 한 소년범들은 비성범죄 청소년 집단에 비해 성일탈 하위척도 상 평균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둘째 현재의 처분명에 관계없이 성범죄를 저지른 과거 경험이 많을수록 성일탈 검사지의 하위척도 상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더 높은 점수를 보일 것이다. 특히 성범죄 누범집단은 성일탈 척도 상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일탈 검사지의 하위척도는 회귀분석을 이용한 성범죄 전과력을 설명함에 있어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연구방법

피조사자

본 연구에 참여하였던 피조사자들은 소년원과 비행예방센터라는 서로 다른 시설에서 모집되었다. 소년원에서는 현재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법 상 8, 9호나 10호를 처분 받은 소년법 104명과 절도 등 성범죄가 아닌 죄명으로 8, 9호나 10호 처분을 받은 135명의 소년범이 자료 수집에 참여하였다. 비행예방센터에서는 총 57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으나 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 문제행동을 보여 법무부의 교육프로그램에 위탁된 청소년들이었다. 따라서 총 296명의 청소년 피조사자들 중 범죄소년은 239명 즉 80.74%를 차지하였다. 과거 소년원에 입원하였던 횡수를 조사해 본 결과 최대 9회까지 존재하였는데, 현재 입원을 포함한 평균 입원횟수는 2.11회(SD=1.28)였다.

피조사자들의 모두 남자들이었으며 연령은 만 12세부터 만 20세까지였는데 이들의 평균 연

령은 16.83세(SD=1.71)였다. 이들 중 9명을 제외한 나머지 청소년들은 모두 3년 이상 학교생활을 한 적이 있었으며 초등학교 졸업자는 17명(5.74%), 중학교 중퇴자는 27명(9.12%), 중학교 졸업자는 46명(15.54%), 고등학교 중퇴자는 82명(27.70%),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들은 22명(7.43%)이었다. 동거인에 대하여서는 독거가 7명(2.36%), 조손가정이 17명(5.74%), 편부나 편모가 56명(18.92%)이라고 답변하였다. 반면 친부모와 함께 사는 피조사자들은 총 138명(46.6%)이 존재하였다.

평가도구

표 1에는 12문항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포함하여 2014년도 법무부 보고서 ‘성범죄 소년원생 비행 위험성 평가척도 개발’ 연구에 포함되어 있던 청소년 성일탈 검사지의 하위척도 별 내적합치도와 이번 피조사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재산출한 내적합치도가 제시되어 있다. 성일탈 검사지의 모든 임상척도에서 산출한 Cronbach 알파는 .70을 넘어서서 우수한 수준의

표 1. 성 일탈 검사지 하위척도별 내적합치도

하위척도	문항 수	Cronbach α(법무부)	Cronbach α(본 연구)
사회적 바람직성	12개	.767	.571
성 인지왜곡	20개	.927	.940
성적 피학 장애	10개	.896	.873
성적 가학 장애	10개	.906	.888
물품음란 장애	10개	.925	.879
복장 도촬 장애	10개	.961	.953
마찰음란 장애	10개	.952	.971
소아성애 장애	10개	.965	.972
관음 장애	10개	.873	.931
노출 장애	10개	.923	.933
음란물중독 장애	10개	.918	.937

내적 합치도를 지니는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 하위척도 별 점수를 T 점수로 표준화 한 검사지는 한국판 성일탈 검사지(Korean Inventory of Sexual Deviations)로 출판을 앞두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판 성일탈 검사지가 청소년 준거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감별해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준거 관련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서는 총 두 번의 변량분석이 실시되었다. 우선 표본에는 죄명을 준거로 하여 이질적인 세 집단이 존재하였다. 우선 성범죄를 저지른 남자 소년원생 103명, 성범죄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 수용된 소년원생 135명,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규율위반을 하여 교육 명령을 받고 의뢰된 비행예방센터 학생들 57명들이 존재하였다. 만일 성일탈 검사지가 청소년들의 성적인 이상행동을 제대로 감별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질적인 세 준거집단 하위척도들 상에서 예상대로의 집단 간 차이, 즉 성범죄 소년범이 지니는 하위척도 점수는 나머지 두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야 한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있어서의 세 가지 준거집단 간 차이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았으므로($F_{2, 286} = 3.076, n.s.$) 하위척도별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성 일탈 검사지의 하위척도들에 있어 나타난 준거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이전에 세 준거집단의 성범죄 횟수에 대한 차이검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표 2). 세 준거집단은 평균 성범죄 횟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F_{2, 292} = 29.25, p < .001$). 성범죄로 소년원

에 입원한 청소년들의 평균 성범죄 횟수는 2.28 번이었고 일반 죄명으로 입원한 소년범들의 성범죄 횟수의 평균은 .30번이었다. 비행예방센터로 교육명령을 이수하러 온 비행청소년들은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 특이했던 것은 특히 성범죄 소년범들의 성범죄 전력은 매우 이질적이었다는 사실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정적 편포를 지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대부분이 2회 정도의 전력이 있었으나 일부 소년범들은 적어도 5회 이상 여러 건의 성범죄 전력을 지니고 있었다.

현재 처분의 죄명을 중심으로 하여 준거집단을 구분하여 이들 세 집단 간 성일탈 하위척도 상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되어 있다시피 10개의 성일탈 하위척도 상에서 유의도 .05 수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였던 척도는 가학증 척도($F_{2, 293} = 3.032, p < .05$) 뿐이었다. 가학증 척도에 대한 Tukey 사후분석 결과는 유의도 .05 수준에서 일반 죄명 집단의 소년범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보다 더 가학적인 사고와 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보다 일반 죄명의 범 죄소년들이 성을 상상하거나 행동으로 옮길 때 더 많이 폭력을 사용한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다른 성일탈 하위척도들에 있어서는 죄명에 따른 준거집단 별 차이는 유의도 .05 수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앞서 성 일탈 검사지 하위척도 상 세 가지 준거집단에 대한 차이가 크게 유의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유의도 .05 수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한 가학성 척도에 있어서는 일반 죄명으로 수감된 소년범들이 성범죄 소년들보다 오히려 더 가학적이란 사실이 밝혀져 성범죄 소년들이 성일탈

표 2. 세 준거집단의 성범죄 횟수

	성범죄 소년범(n=103)	일반 소년범(n=135)	비행예방센터생(n=57)
성범죄 횟수	2.28(3.57)	.30(1.06)	.00(.00)

표 3. 성 일탈 검사지 하위척도 별 준거집단의 평균 T점수와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SD)	F 값
성인지왜곡T	성범죄 소년범	102	49.25(9.82)	2.096
	일반 소년범	133	51.77(10.41)	
	비행예방센터생	57	49.56(9.61)	
피학증T	성범죄 소년범	104	48.32(7.56)	1.058
	일반 소년범	135	49.58(7.71)	
	비행예방센터생	56	48.29(6.72)	
가학증T	성범죄 소년범	104	48.12(7.41) ^b	3.032*
	일반 소년범	135	50.48(8.27) ^a	
	비행예방센터생	57	48.74(6.28) ^b	
물품음란증T	성범죄 소년범	104	49.54(8.17)	.407
	일반 소년범	135	50.19(8.44)	
	비행예방센터생	57	49.12(6.71)	
복장도착증T	성범죄 소년범	104	46.90(6.94)	.325
	일반 소년범	135	47.16(6.99)	
	비행예방센터생	57	46.32(5.07)	
마찰음란증T	성범죄 소년범	102	46.34(5.52)	1.799
	일반 소년범	135	46.94(6.37)	
	비행예방센터생	57	45.30(2.25)	
소아성애증T	성범죄 소년범	102	46.25(5.30)	.813
	일반 소년범	135	46.51(5.36)	
	비행예방센터생	57	45.53(2.25)	
관음증T	성범죄 소년범	102	48.87(7.73)	.923
	일반 소년범	135	49.91(8.16)	
	비행예방센터생	57	48.46(6.38)	
노출증T	성범죄 소년범	104	47.59(7.97)	1.228
	일반 소년범	135	47.70(7.24)	
	비행예방센터생	57	46.04(4.02)	
음란물중독T	성범죄 소년범	104	50.06(8.85)	1.524
	일반 소년범	135	50.24(8.68)	
	비행예방센터생	57	48.00(6.98)	

* $p < .05$, ** $p < .01$, *** $p < .001$

서로 다른 첨자는 .05 수준에서의 Tukey 사후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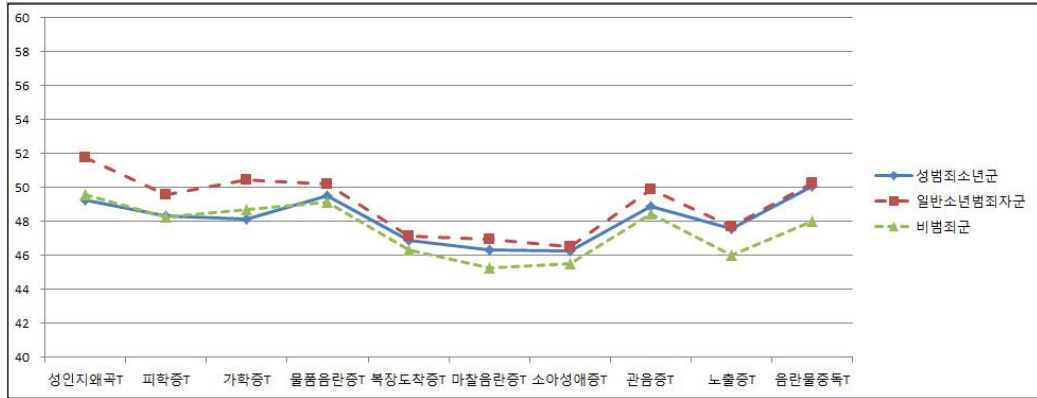


그림 1. 성 일탈 하위척도에 있어서의 죄명에 따른 평균 도표

적 사고를 더 많이 할 것이라는 일반적 믿음(첫 번째 가설)은 성립하지 않았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가학증을 제외하고는 모든 척도 상, 현재의 처분명을 근거로 한 준거집단의 차이는 별로 뚜렷하지 않았다.

반면 죄명과 관계없이 소년범들의 과거 성범죄 관련 전과횟수에 따라 성일탈 척도 상에서의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자의 예상을 그대로 입증해주었는데, 성범죄 누범 소년일수록 성일탈적 특이성이 뚜렷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다른 죄명으로 소년원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과거에는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청소년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표 4에는 성범죄 전력을 준거지표로 하여 새로이 추출된 세 집단, 즉 성범죄 재범군과 초범군 그리고 일반 비행청소년들의 성일탈의 정도가 하위척도 별로 제시되어 있다.

수감될 당시의 죄명이 아닌, 성범죄 전력 2회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성범죄 누범자들을 재분류한 결과 상승성을 가정할 수 있는 성범죄자들은 13명이 존재하였다. 이들과 성범죄 초범자, 그리고 비범죄 청소년들을 비교한 결과 성인지 왜곡과 관음증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일탈 하위척도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 집단은 피학증($F_{2,268}=12.200, p<.001$), 가학증($F_{2,268}=13.126, p<.001$), 물품음란증($F_{2,268}=7.960,$

$p<.001$), 복장도착증($F_{2,268}=10.756, p<.001$), 마찰음란증($F_{2,268}=3.492, p<.05$), 소아성애증($F_{2,268}=7.456, p<.001$), 노출증($F_{2,268}=10.728, p<.001$), 물품음란증($F_{2,268}=3.227, p<.05$) 척도 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분석으로 실시하였던 Tukey 검정 결과 피학증 척도에서는 성범죄 재범군이 나머지 두 집단보다 더 뚜렷한 점수의 상승을 보였으며 가학증 역시 재범군이 나머지 두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물품음란증이나 복장도착증, 마찰음란증, 소아성애증, 노출증, 음란물중독 등 거의 모든 척도에서 성범죄 재범군은 성범죄 초범군이나 비범죄군에 비하여 더 많은 성적 일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림 1에 비하여 그림 2에서 성범죄 재범군이 나머지 그 어떤 집단보다 뚜렷한 성일탈적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표 5에는 성 일탈 검사지 하위척도들과 성범죄 횟수와의 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물론 이 결과로는 성일탈과 성범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지만 본 청소년 판 성일탈 검사지가 예상한대로의 준거지표와의 유관성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타당도 증거는 될 수 있다. 결과는 표 4와 흡사한 내용을 시사하는데, 성인지왜곡과 관음증 척도를 제외한 모든

표 4. 성 일탈 검사지 하위척도 상 성범죄 누범자와 일반 비행청소년과의 차이검정

		사례수	평균(SD)	F 값
성인지왜곡T	2번 이상 성범죄 누범	13	53.54(15.44)	1.65
	성범죄 초범	78	49.05(9.16)	
	그 외 비행청소년	180	51.10(10.12)	
피학증T	2번 이상 성범죄 누범	13	57.46(13.93) ^a	12.200***
	성범죄 초범	78	47.24(5.77) ^b	
	그 외 비행청소년	180	48.86(6.64) ^b	
가학증T	2번 이상 성범죄 누범	13	58.62(13.20) ^a	13.126***
	성범죄 초범	78	47.42(6.15) ^b	
	그 외 비행청소년	180	49.59(7.26) ^b	
물품음란증T	2번 이상 성범죄 누범	13	58.00(13.24) ^a	7.960***
	성범죄 초범	78	48.81(7.24) ^b	
	그 외 비행청소년	180	49.53(7.50) ^b	
복장도착증T	2번 이상 성범죄 누범	13	55.00(15.64) ^a	10.756***
	성범죄 초범	78	46.46(5.77) ^b	
	그 외 비행청소년	180	46.54(5.59) ^b	
마찰음란증T	2번 이상 성범죄 누범	13	50.45(12.14) ^a	3.492*
	성범죄 초범	78	45.83(4.24) ^b	
	그 외 비행청소년	180	46.45(5.28) ^b	
소아성애증T	2번 이상 성범죄 누범	13	51.45(12.27) ^a	7.456***
	성범죄 초범	78	45.85(4.58) ^b	
	그 외 비행청소년	180	46.02(3.79) ^b	
관음증T	2번 이상 성범죄 누범	13	52.18(11.72)	1.244
	성범죄 초범	78	48.46(7.28)	
	그 외 비행청소년	180	49.37(7.51)	
노출증T	2번 이상 성범죄 누범	13	56.00(15.71) ^a	10.728***
	성범죄 초범	78	46.68(6.13) ^b	
	그 외 비행청소년	180	47.02(6.24) ^b	
음란물증독T	2번 이상 성범죄 누범	13	55.31(14.80) ^a	3.227*
	성범죄 초범	78	48.83(7.42) ^b	
	그 외 비행청소년	180	49.77(8.36) ^b	

* $p < .05$, ** $p < .01$, *** $p < .001$

서로 다른 첨자는 .05 수준에서의 Tukey 사후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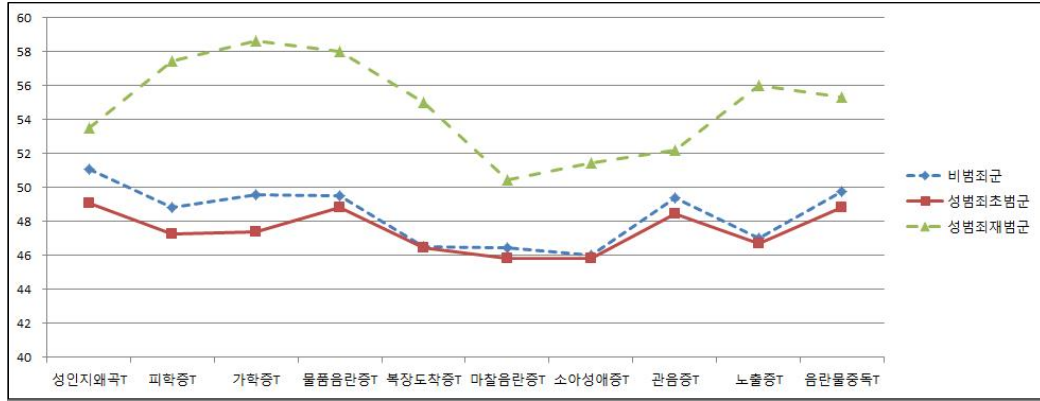


그림 2. 성 일탈 하위척도에 있어서의 성범죄 전력에 따른 평균 도표

표 5. 성일탈의 정도와 성범죄 횟수 간 관련성

	성인지 왜곡T	피학중T	가학중T	물품 음란중T	복장 도착중T	마찰 음란중T	소아 성애중T	관음중T	노출중T	음란물 중독T
성범죄 횟수	.116	.281***	.256***	.242***	.371***	.158*	.256***	.070	.360***	.224***

하위척도 점수와 피조사자들의 성범죄 횟수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이는 증 성일탈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성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는 성범죄의 반복에 성적인 일탈 중 어느 척도가 보다 선명한 예측력을 지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단계선택 방법으로 실시하였던 회귀분석의 Durbin-Watson 값은 1.089로서 1에서 3사이의 값을 지녀 잔차의 독립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다

중공선성을 평가하는 VIF 값 역시 10 이하의 수 즉 1.118을 보여 최종적인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모형의 F값은 11.64였다. 이는 유의도 .001 수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하는 것이었는데, 이 모형이 성범죄 횟수를 설명하는 정도는 약 8%였다. 성범죄 횟수를 종속측정치로 한 회귀모형에 포함되었던 예측지표는 두 개였는데, 성인지왜곡의 정도와 소아성애적 경향성이었다.

성인지왜곡의 정도와 소아성애적 경향성이 성범죄의 횟수를 예측하는 정도는 각기 영가설

표 6. 성범죄 횟수에 대한 성일탈 검사 하위척도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β		
(상수)	-1.107	.400		-2.768	.006
소아성애중T	.043	.009	.300	4.783	.000
성인지왜곡T	-.009	.004	-.136	-2.162	.032

을 기각할 수준이었는데, 피조사자들의 성범죄 횟수는 소아성애가 .300 단위 증가하고 성인지 왜곡이 -.136 단위 감소할 때마다 한 단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표준화 계수의 방향성은 문제가 되었는데, 소아성애적 경향 증가할수록 성범죄 횟수도 증가하여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인지왜곡의 정도는 성범죄 횟수와 예측하지 못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하여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성범죄 재범에 성도착적 경향이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들만을 초범군과 재범군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 포함된 소년들의 수는 총 91명이었고 이중 재범군은 총 13명이 존재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Hosmer와 Lemeshow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값이 .052로 나와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았으므로 이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Wald 후진적 선택법으로 회전시켜 산출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는 표 7에서처럼 한 가지 성일탈 경향성이 예측치로서 포함되었는데, 이 모형의 -2 Log우도 값은 57.82, 이때의 Cox와 Snell의 R^2 설명력은 9.2%, Nagelkerke의 R^2 설명력은 17.4%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범죄자들의 재범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포함되었던 예측치는 성적 가학성이었다. 즉 성범죄를 처음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의 가학성이 클수록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대 해석도 가능한 것인 바, 이미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가학성 등 성적 일탈이 심하지 않은 청

소년들은 성범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재범 여부를 초범자는 98.7%, 재범자는 18.2%, 총 88.6%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의 및 제언

연구의 가설은 세 가지였다. 각각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종속측정치 상 성범죄 여부에 따른 준거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특히 가학증 척도에 있어 죄명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하지만 가학증 이외의 척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두 번째 가설이었던 피조사자들의 성범죄 전력을 준거지표로 구성하여 다시금 성일탈 하위척도 상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는 바 성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던 범죄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다양한 성일탈 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지니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4에는 이에 대한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세 번째 가설은 성범죄 누범화에 성도착적 경향이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었는데, 선행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소아성애와 가학증 등이 예상대로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성적 가학증은 성범죄 초범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재범을 저지르도록 하는 원인 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회귀분석들에 있어 예상외의 관계가 확인된 것은 성인지에의 왜곡이었다. 성인 성범죄자들

표 7. 성범죄 재범 여부에 대한 성일탈 검사 하위척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S.E.	Wal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상수)	-6.947	1.809	14.744	1	.000	.001
가학증T	.099	.034	8.539	1	.003	1.104

에 대한 재범요인으로 중요한 예측치로 언급되었던 성인지왜곡이 본 연구에서 실시하였던 회귀분석에서는 오히려 성범죄 재범과 부적 관련성을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다른 변수들과의 복잡한 다중공선성 때문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으나, 그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검사지에 포함되었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하위척도들 간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성인지왜곡 척도는 다른 척도들에 비하여 사회적 바람직성과 가장 강력한 정적 상관(.246, $p < .001$)을 보였다, 이는 성인지왜곡 척도에 대한 피조사자의 반응경향성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사법기관에의 방문 경험이 많을수록 성인지왜곡 척도에 있어 자기방어적 경향성을 더 많이 발휘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성인지왜곡 척도 상의 점수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추정하는데, 성도착과 연관된 척도들은 관련 행동경험을 직접적으로 묻는 데 비하여 성인지왜곡 척도는 태도나 생각을 물어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자기보고식 검사지의 일반적인 취약성인 사회적 바람직성에 보다 더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Paulhus, 1991).

주목해야 할 점은 표 3에서 나타난 것처럼 죄명만을 토대로 하여 성일탈 하위척도에 있어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성범죄와 성일탈의 관련성이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성범죄군에 초범자의 숫자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성범죄 초범 청소년들 중 극소수만이 일탈적 성적 취향으로 인해 누범으로 빠지는 것을 시사한다. 성적 일탈이 청소년 성범죄자들에게 있어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아닌 이유는 성인과 달리 청소년 성범죄는 또래 집단과 어울려 유행의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의 성범죄는 개인의 특이성보다는 집단압력 등 보다 상황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물론 이에 대하여서는 공범 여부에 대한 확인을 통해 다시

금 입증이 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나, 현재의 결과만으로 보더라도 성인범이고 소년범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모두 위험군으로 취급하여 매우 엄격한 수용원칙을 고집하는 것이 적절한 처우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 초범자들은 다른 죄명으로 수감된 소년들과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본 연구의 또 다른 결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퇴원 심사 등에서 배제하는 등 징벌적인 처분들을 이들에게 성인 성범죄자들에게처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검거와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억제하기가 어렵다. 획일화된 시설수용 이외에 대상자의 고유한 범죄 관련 위험요인(risk factors)을 찾아내고 이 중에서 재범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욕구(criminogenic needs)를 낮추려는 개별화된 개입(individualized intervention)이 교정교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성범죄는 특히 RNR(Risk, Need, Responsivity) 모형을 적용하여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꼭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소개한 성일탈 검사지를 사용한다면 피검자의 성범죄의 재범요인에 대한 파악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져, 이후 집행하게 되는 여러 가지 개별화된 처우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bel, G. G., Rouleau, J., & Cunningham-Rathner, J. (1986). Sexually aggressive behavior. In W. Curran, A. McGarry, & S. Shah (Eds.) *Psychiatry and Psychology: Perspectives and Standards for Interdisciplinary Practice*. Philadelphia: FA Davis.
- Abel, G. G., Becker, J. V., Mittelman, M., Cunningham-Rathner, J., Rouleau, J. L., & Murphy, W. D. (1987). Self-reported sex crimes of nonincarcerated paraphiliacs. *Journal of*

- Interpersonal Violence*, 2(1), 3-25.
- Abel, G. G., Mittelman, M. S. & Becker, J. V. (1985). Sexual offenders: Results of assessment and recommendations for treatment. *Clinical criminology: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criminal behavior*, 191-205.
- Aljazeera, L. (1993). Historical, environmental,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sexual offending by male adolescents: A critical review.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11(4), 423-44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ManMag.
- Barriga, A. Q., & Gibbs, J. C. (1996). Measuring cognitive distortion in antisocial youth: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How I think" Questionnaire. *Aggressive Behavior*, 22(5), 333-343.
- Bourke, M. L., & Donohue, B. (1996). Assessment and treatment of juvenile sex offenders: An empirical review.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5(1), 47-70.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
- Burton, D. L. (2000). Were adolescent sexual offenders children with sexual behavior problems? *Sexual Abuse: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2, 37-48.
- Caputo, A. A., Frick, P. J., & Brodsky, S. L. (1999). Family violence and juvenile sex offending: The potential mediating role of psychopathic traits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women.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6(3), 338.
- Daleiden, E. L., Kaufman, K. L., Hilliker, D. R., & O'Neil, J. N. (1998). The sexual histories and fantasies of youthful males: A comparison of sexual offending, nonsexual offending, and nonoffending group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0(3), 195-209.
- Freund, K. (1990). Courtship disorders: Toward a biosocial understanding of voyeurism, exhibitionism, toucherism and the preferential rape pattern. *Crime in biological, social and moral contexts*, 100-114.
- Gal, M., & Hoge, R. D. (1999). A profile of the adolescent sex offender. *Forum on Correctional Research*, 11, 7-11.
- Graves, R. B., Openshaw, D. K., Ascione, F. R., & Ericksen, S. L. (1996). Demographic an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youthful sexual offen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0(4), 300-317.
- Hagan, M. P., Gust-Brey, K. L., Cho, M. E., & Dow, E. (2001). Eight year comparative analyses of adolescent rapists, adolescent child molesters, other adolescent delinquents, and the general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5, 314-324.
- Hanson, R. K., & Harris, A. J. (2000). Where should we intervene? Dynamic predictors of sexual offense recidivism.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7(1), 6-35.
- Hunter Jr, J. A., Goodwin, D. W., & Becker, J. V.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phalometrically measured deviant sexual arous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in juvenile sexual offende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5), 533-538.
- Hunter, J. A., & Becker, J. V. (1994). The role of deviant sexual arousal in juvenile sexual offending: Etiology, evaluation and treatment.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1(1), 132-149.
- Kahn, T. J., & Chambers, H. J. (1991). Assessing reoffense risk with juvenile sexual offenders. *Child Welfare*, 70, 333-344.
- Katz, R. C. (1990). Psychosocial and adjustment in adolescent child molesters. *Child Abuse and Neglect*, 14(4), 567-575.

- Knight, R. A., & Prentky, R. (1993). Exploring characteristics for classifying juvenile sex offenders. In H. E. Barbaree, W. L. Marshall, & S. M. Hudson (Eds.), *The juvenile sex offender* (pp. 45-79).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obayashi, J., Sales, B., Becker, J. V., Figueredo, A. J. (1995). Perceived parental deviance, parent/child bonding, child abuse and child sexual aggression. *Sexual Abuse: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7, 25-44.
- Lakey, J. F. (1992). Myth information and bizarre beliefs of male juvenile sex offenders. *Journal of Addictions and Offender Counselling*, 13(1), 2-10.
- Långström, N., & Grann, M. (2000). Risk for criminal recidivism among young sex 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 855-873.
- Liau, A. K., Barriga, A. Q., & Gibbs, J. C. (1998). Relations between self serving cognitive distortions and overt vs. covert antisocial behavior in adolescents. *Aggressive Behavior*, 24(5), 335-346.
- Marshall, W. L. (1993). The role of attachments, intimacy, and loneliness in the etiology and maintenance of sexual offending. *Sexual and Marital Therapy*, 8(2), 109-121.
- Miner, M. H. (2002). Factors associated with recidivism in juveniles: An analysis of serious juvenile sex offender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9(4), 421-436.
- Mitchell, J., & Dodder, R. A. (1983). Types of neutralization and types of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2(4), Morenz, B., & Becker, J. (1995). The treatment of youthful sexual offenders.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4(4), 247-256.
- Murphy, W. D., Haynes, M. R., & Page, I. J. (1992). Adolescent sex offenders. In W. O'Donohue, J. H. Geer, et al. (Eds.),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Clinical issues* (Vol. II, pp. 394-429).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Paulhus, D.L. (1991). Measurement and control of response biases. In J. P. Robinson et al. (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San Diego: Academic Press.
- Short, R. J., & Simeonsson, R. J. (1986). Social cognition and aggression in delinquent adolescent males. *Adolescence*, 21(81), 159-176.
- Spaccarelli, S., Bowden, B., Coatsworth, J. D., & Kim, S. (1997). Psychosocial correlates of male sexual aggression in a chronic delinquent sampl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4(1), 71-95.
- Wieckowski, E., Hartsoe, P., Mayer, A., & Shortz, J. (1998). Deviant sexual behavior in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Frequency and pattern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0(4), 293-304.
- Worling, J. R. (1995). Sexual abuse histories of adolescent male sex offenders: Differences on the basis of age and gender of their victi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4), 610-613.
- Young, H. P. (2001). *Individual strategy and social structure: An evolutionary theory of institu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 차원고접수 : 2015. 08. 18.

수정원고접수 : 2015. 10. 27.

최종게재결정 : 2015. 11. 05.

Sexual Deviance as a Recidivism Predictor for Korean Juvenile Sex Offenders

Soo Jung Lee

Professor, Department of Forensic Psychology,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validity evidences of the Korean Inventory of Sexual Deviations to predict the recidivism of juvenile sex offenders. For this purpos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04 incarcerated juvenile sex offenders, 135 incarcerated juvenile non-sex offenders, and 57 non-offender juveniles from general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on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was found on the sadism subscale when criterion groups were compared based on the name of present offences; juvenile non-sex offenders obtained higher mean score than that of the other two groups. Next, criterion groups were re-categorized based on the record of sex offences. Analysis of variance produced interpretable results that juvenile sex offenders with recidivism obtained higher scores than other two correspondents on the most paraphilia subscales except cognitive distortion and voyeurism. Finally, the analyses of linear and logistic regression presented pedophilia and sexual sadism would be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s of recidivism of juvenile sex offenders.

Keywords : *Korean Inventory of Sexual Deviations, Juvenile Sex Offenders, Sexual Deviance, Paraphilia, Recidivism Predictors, Criminalization*

부록. 한국판 성 일탈 검사지의 하위척도별 문항 샘플

척도명	문항 내용
사회적 바람직성	내가 정말 원한다면, 나는 어떤 일에 관한 것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인생이 지루해질 때, 다른 일을 시도해 보고 싶다. 나는 사람들이 내게 말을 걸게 만드는 재주를 가졌다.
성인지 왜곡	여자가 친근감 있게 남자를 대하는 것은 성적 접촉을 허용한다는 의사표시이다. 남자가 식사 등으로 여자를 지극히 대접하면 여자는 대개 섹스를 허락한다.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그와의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성적 피학증	누군가 나에게 모욕을 주는 상상이 나를 흥분시킨 적이 있다. 성적 흥분을 위해 몸에 피가 날 때까지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 물리적인 고통을 받는 상상이 나를 흥분시킨다.
성적 가학증	고문에 대한 묘사나 이야기를 읽는 것을 좋아한다. 누군가를 때리는 상상이 나를 흥분시킨 적이 있다. 성적 흥분을 위해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자른 적이 있다.
물품음란증	이성보다는 물건(벨벳, 실크, 가죽, 고무 등)에 대하여 성적 매력을 느낀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지닌 상대를 더 매력적이라고 느낀다. 내가 집착하는 물건을 지니고 있을 때, 나는 자신이 성적으로 더 매력적이라고 느낀다.
복장도착증	여성의 복장을 입고 흥분한 적이 있다. 여성의 신발(하이힐, 부츠 등)을 신고 흥분한 적이 있다. 여성의 향수나 화장품을 바르거나 다리를 면도하며 흥분한 적이 있다.
마찰음란증	지하철 등 혼잡한 곳에서 성기를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접촉한 적이 있다. 지하철 등 혼잡한 곳에서 모르는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적이 있다.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여성을 보고 성기를 문지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소아성애증	아이들이 성적으로 나를 유혹하기도 한다. 6세 이하의 아이에게 성적 매력을 느낀 적이 있다. 아주 어린 아동과 키스를 나누며 좋은 느낌을 받았다.
관음증	성관계를 맺기보다는 몰래 지켜만 보고 싶은 욕구가 더 크다. 남몰래 지켜보고 싶은 성적인 장면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본 적이 있다.
노출증	노상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 정상적인 성관계보다는 모르는 사람에게 성기를 노출하는 것이 더 자극적이다. 처음으로 노상에서 성기를 노출하였을 때, 나에게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음란물중독	음란물을 보는 데 오랜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인해 가정, 학교 또는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 인터넷 음란물 이용으로 밤을 새거나 잠을 자지 못한다. 인터넷 음란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음란물과 관련된 환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 (R) 역채점 문항